

북한개발소식

2025 OCT

10

통권 240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서민경제 불안과
그 시사점

북한을 위한 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뉴스

중국 전승절 참석한 김정은...
중, 러와의 친교 과시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서민경제 불안과 그 시사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OCT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서민경제 불안과 그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의 서민경제 불안과 그 시사점
- 칼럼_1 **08** 노정민 _ 북 주민 “장사 안돼 매대 접어요” 요즘은 국영 상점이 대세... 위축되는 북한 시장
- 칼럼_2 **14** 최 설 _ 최근 북한의 시장 억제 정책과 민생 영향
- 칼럼_3 **19** 백명숙 _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에 대한 고찰
- 인터뷰 **26** 편집부 _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 서평 **32** 여자는 죽지 않았다.
- 북한뉴스 **34** 중국 전승절 참석한 김정은... 중, 러와의 친교 과시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시다. 외



을 4월 15일 평양에서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준공식이 열렸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공연이 함께한 준공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 “오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 보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 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라며 “모두 다 새집에서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에서 보이는 평양의 풍경은 불빛이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이목을 끈다.

그렇지만 화려한 평양의 풍경 뒤로는 심각해져만가는 빈곤의 소식이 들려온다. 북한 내부의 환율과 물가는 1년 넘게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불안한 경제 지표의 이면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묻어난다. 이 글에서는 근래 북한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물가 및 환율 동향: 경고등 켜진 시장 지표

북한의 환율과 물가 불안 현상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 초 기준 평양·신의주·혜산 지역에서의 북한 원화 대비 1달러 환율은 약 3만원대로 치솟았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준공식 모습〉

다. 2년 전인 23년 8월에는 8000 원대, 24년 8월에는 15,000원 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매년 약 2 배씩 상승한 셈이다. 식량 가격 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평양·신의주·해산 지역에서의 쌀 1kg 가격은 8월 초 기준 약 1만 5천 원 수준이었다. 1년 전 가격이 약 5,700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0%나 상승한 셈이다. 특히 8월 중순부터는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여 9월 중순 기준 약 2만 5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¹⁾ 농업 생산량 자체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작물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폭등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니라 환율 급등과 외화 부족, 북한 돈의 가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 자력갱생과 버티기

최근 북한의 경제 지표들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를 살펴보자면 코로나19 을 전후하여 바뀐 국가 통제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경제 노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북한은 기대했던 북미 대화가 소득 없이 끝나고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맞았다. 특히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통제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어 북한의 외화 수급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에 봉착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중 무역이 중단되었다. 자연스럽게 외화 유출이 감소되었고, 이와 함께 시장에 공급되어야 할 물자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이동통제로 인해 시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북한 당국은 국내자원을 이용해 제재 장기화에 버

티는 소위 ‘내순환(내순환) 경제’ 전략을 추진한다.²⁾ 국내의 필요를 수입이 아닌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해당 전략의 주요 골자이다. 대북 제재로 외화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고, 수출입 급감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략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소비 측면에서 당국 주도의 개입을 확대하는 국가 유통 강화 정책,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자체 공급을 강화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으로 대표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통부문에서는 국영 상점이 확대되고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면서 국영 상점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대외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개인이 기업소의 이름으로 무역에 참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국가가 모든 무역을 독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들어온 물건도 국영상점으로 주로 납품이 된다. 이제 장마당의 물건들은 장사꾼들이 직접 유통한 물건이 아닌, 국영시장에서도매로 구한 물건이 거래된다.³⁾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과 그 가격이 시장 자율이 아닌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식량에 대한 유통 주도권도 확보했다. 양곡 판매제를 실시하고 수매된 양곡을 국영 양곡 판매소를 통해 유통시키면서 시장에서 개인이 식량을 판매하는 데에는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입과 국내 생산을 통틀어 전반적인 식량 유통을 모두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생산 부분에서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이 강조된다. 각 지방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공장을 10년간 20곳씩 건설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국경 봉쇄를 추진하면서 수입품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갱생하자고 외쳤지만, 북한 내 산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 내에서 생산하거나 구할 수 있는 물품은 한정적이고, 수입을 하지 않고는 산업 생산을 위한 자재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



2) 최지영 (2025),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과 그 영향: 시장 지표 변동과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 리뷰 2025년 1월호, pp. 97-102.

3) “쇠퇴하는 시장, 강화되는 국가 독점 - 급변하는 북한 경제와 회복되는 김정은의 통제력”, Asiapress 공개세미나 참고자료 (2025.07.09.),

1) 데일리NK 북한 시장 물가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 25년 9월 17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내 원료로 국내 공장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 바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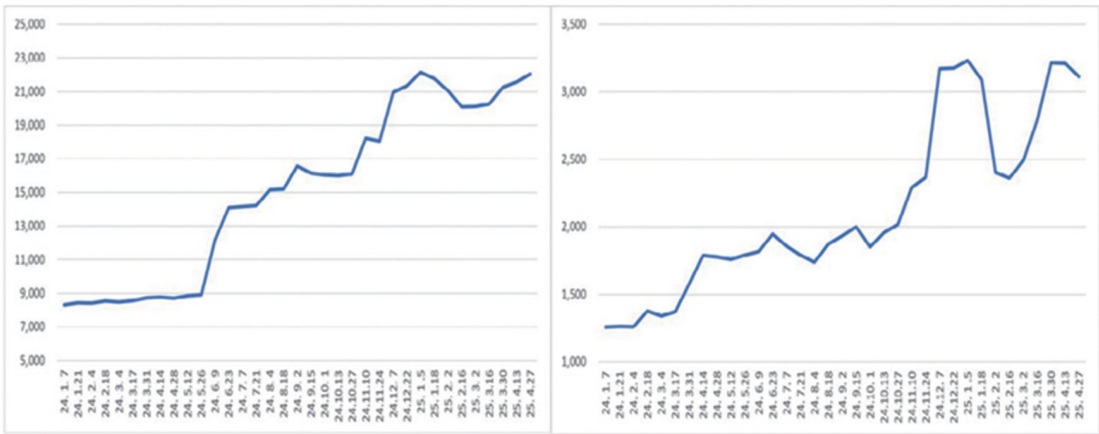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지방의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농촌 개발과도 연개되어 있다. 21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은 농민들을 지식근로자화 하고, 과학 기술을 동원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며, 농촌 문명화를 통해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 따라 농촌 살림집 건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시군 지역에 병원이나 상업 유통 시설, 문화 여가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활용하여 사회 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관 및 기업소의 월급을 10배에서 20배 이상 인상하며 주민들이 다시금 국가 조직 생활로 복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무의미했던 기관·기업소 월급이 대폭 인상되고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 조직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사꾼들과 시장 노동자들이 다시금 조직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회적 경제 활동 중 상당수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한 불편한 심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무역과 유통의 주도권을 가지고 온 만큼 북한 당국은 이번 기회를 사회 통제력 복원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더욱 가난해지는 주민들

북한의 이러한 경제 기조는 당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악화된 국가 재정 여건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사회 통제를 회복시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과 수입,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당국의 버티기 전략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주민들의 소득이 대폭 감소했다. 시장 위축의 장기화는 주민들이 소득활동을 위한 공간을 크게 축소시켰다. 별이가 마땅치 않아진 주민들 중 상



〈북한 원/달러(좌측), 원/위안(우측) 환율 추세 (2024.01~2025.04)⁶⁾〉

당수가 당국의 의도한 바와 같이 기관 및 기업소로 복귀하였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인상된 월급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업소는 수익을 내야 임금 인상이 가능한데, 운영이 어려운 기업소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임금 인상은 결국 돈이 시중에 대폭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한 지방발전 20X10은 환율 불안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책 추진을 위해 각지에서 공장 건설과 가동을 위한 설비와 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설비와 자재 대부분이 자체 생산이 어려워 수입 소요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수입품 의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수입의 필요를 증대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자연스럽게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환율의 상승을 자극했다. 환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직후인 23년도 초가 아닌 기관·기업소 임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24년 4월)⁵⁾ 지방발전 20X10 정책(24년 1월)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인 2024년 2/4분기부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북한 돈의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은 물가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수준의 임금

4) 송현진(2022),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14집 2호), pp.117~162.

5) “북 공장기업소 노동자 월급 20배 인상 전면 시행”, 자유아시아방송 (2024.04.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facorty-04292024095034.html>

6) 임수호 (2025),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국가안전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687호 (2025.05.15), p.1.

을 받게 되었지만,⁷⁾ 쌀값이 1kg당 5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오르는 극심한 물가인상은 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마땅한 소득원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경제지표가 단시일 내에 안정화되리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화폐개혁(2009년) 등 북한의 시장 지표가 요동친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따라 일정한 환율과 물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경제는 국가가 이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단속과 통제로 시장 지표를 안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⁸⁾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북한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외화와 물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비록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수출길은 막혔지만, 북한은 러우전쟁 참전과 군수물자 지원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외화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2024년 북한의 경제성장을 최근 8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7%로 추산하였는데, 러우 전쟁 파병과 군수 물자 지원 등 북러 경제협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⁹⁾

이렇게 외부로부터 외화와 식량 등이 공급되었는데 왜 서민 경제의 불안은 완화되지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져만 갈까?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북한 경제 안정화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유입된 자원을 평양의 핵심계층 위주로, 또 가시적인 건축사업과 무기 개발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위주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당국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로 인해 대북 제재를 유발하여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든 지도부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을 평양으로 대표되는 지도층과 권력형 돈주 등 핵심계층을 제외한 지방 및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는 분명 잘못되었다. 게다가 제재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통제력 강화를 서민 경제보다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 불

안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습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북한 당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통제력 강화와 시장 억압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직후 앞으로 북중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외화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제 불안이 단순 외화 부족뿐 아니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심리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시장을 억압하는 대신 자율성과 효율성을 회복시키거나, 적어도 그러한 희망이 보이도록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정책 노선이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불가피한, 또는 취지 자체는 좋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북한 당국의 현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과 같은 경제 붕괴나 대규모 기근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수 년 전부터 현장에서 들려오는 굶주림과 생계 곤란에 처한 북한 내 소식들을 접하노라면 확대된 빈부격차 속에서 오히려 무관심속에 외면당하는 소외된 이들의 고통은 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당국이 통제 우선, 평양 우선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북한의 화려한 평양의 불빛과 위협적인 무기들 너머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외된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주민들이 억압 속에서 체제의 부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존귀함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독자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7) [임금 인상③] 월급 인상 들쭉날쭉...소득 격차 더 심화, 데일리NK (2025.04.04.), <<https://www.dailynk.com/20250404-5/>>

8) 최진영, 앞의 글, p. 101.

9) 작년 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최고, KBS 뉴스 (2025.08.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3749>>

10) 고공행진하던 北 환율 ‘뚝’...김정은 방중 이후 무슨 일이?, 데일리NK (2025.09.18), <<https://www.dailynk.com/20250918-1/>>

북주민 “장사 안돼 매대 접어요” 요즘은 국영 상점이 대세… 위축되는 북한 시장

노 정 민 선임 에디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

“지금 국영 상점이 거의 유통을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국가가 돈벌이하는 형태가 돼가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취재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가 지난 10일 필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 시장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과거에는 개인이 시장에서 판매할 물품과 가격을 정하고, 자기 재량껏 유통해 시장에서 팔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은 아예 판매할 수 없고,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나 바코드가 없는 물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출처가 명확한 물건만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신발, 의류, 전자제품, 생필품 등 각종 공산품은 개인이 유통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국영 상점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상인이 적지 않은데, 이마저도 ‘국가유일가격제’가 도입되면서 파는 가격까지 정해진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물건을 생산하는 국영 공장이 아예 시장에 상점을 내고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북한 시장에서 일반 주민이 파는 품목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마저도 국영 상점에 다 있는 것들이다. 또 국영 상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일반 시장은 전기 사정에 따라 카드 사용이 어렵다 보니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은 국영 상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접촉한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이 정한 시장 운영 시간은 하루 3시간에 불과하다. 여름철에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주민들이 살림집과 도로 건설 등 각종 과제와 농촌 지원 사업에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 운영 시간을 더 철저히 제한하기도 한다. 반면, 국영 상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하는데, 일반 주민이 국영 상점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시장 관리소의 검열도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양강도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매일 두 번씩 관리소 근무자들이 시장을 돌면서 ‘판매원이 45세 이상 여성인지’, ‘판매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처럼 시장 운영 시간의 제한, 유통과 판매의 통제 등으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많은 북한 주민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약 500개의 시장이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고, 시장이 일반 주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지만, “예전 같지 않은 돈벌이에 개인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하나둘씩 사라지는 북한 시장

자유아시아방송은 2024년 12월, 일부 지역의 북한 시장 변화를 위성사진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 위성사진에서 일부 길거리 시장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는가 하면, 공식 시장에서도 빈 매대가 늘어나는 등 위축된 시장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한 예로 2019년 2월에 촬영한 평양 인근의 한 비공식 시장은 도로 양쪽에 흰 천막을 친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2024년 2월에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모든 상점이 철거됐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2월 27일과 2024년 2월 29일에 촬영한 북한 평양 천리마 거리. 길거리 상점과 인파로 북적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곳에서 시장 활동이 중단됐다. (플래닛 랩스 / 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또 과거 상행위가 활발했던 강원도 원산시의 한 길거리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로였는데, 2019년 12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과 인파로 북적였지만, 2024년 3월에는 주택 건물이 들어섰을 뿐, 시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원산시의 거리 시장과 평안북도 의주군의 덕룡노동자구 시장, 평안남도 은산군 학산구 시장 등이 폐쇄된 것을 위성사진에 확인할 수 있었고, 황해북도 서흥군 신막읍에 있는 시장은 2020년부터 규모가 축소했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국가가 공식 또는 비공식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운영 시간과 거래 품목, 유통 방식 등을 제한하면서 시장 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시장의 위축이 도시 주민의 현금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돈이 없는 도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식량이나 생필품을 사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위해 적은 배급이라도 주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하거나 하루 북한 돈 5천~7천 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기도 한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루 일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아도는 노동력이 넘쳐나면서 일용직 단가 자체도 많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돈주(신흥부유층)들의 행보도 이전과 달라졌다고 한다. 이전



〈2019년 12월 5일과 2024년 3월 26일 촬영한 북한 강원도 원산시의 시장 거리. 2019년 당시 길게 늘어선 상점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올해는 텅 비어 있다. (플래닛 랩스 / 미 자유아시아방송 제공)〉

시장이 아닌 국가 기관과 협력하는 돈주들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시장에서 투자와 유통을 주도해 돈을 벌었다면, 요즘은 국영 상점에 개입해 내부 공사나 차량, 휘발유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윤과 혜택을 얻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돈주와 일반 주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통제하는 이유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많은 전문가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시장 경제에 대한 주도권과 장악력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공식 시장에서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는 주민 외에 골목시장, 메뚜기 시장, 매탁시장 등 비공식 시장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개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체제 안정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고, 과거 코로나 대유행으로 통제를 강화하던 시점이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개인이 무역과 유통, 상업 등 경제활동에서 얻는 많은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셋째, 그동안 시장 경제 활동으로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던 주민들의 사상을 뿌리 뽑자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는 시장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본심은 철저히 ‘반시장적’이라고 단언한다. 김 국무위원장은 국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시장 운영을 허용했지만, 시장의 확산이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그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품은 국가가 생산하는데, 개인들이 그 상품을 빼돌려 이익을 본다”라며 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리정호 씨는 회상했다.

또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존재한다.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뿐 아니라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 이를 운반하는 운송업자,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시장 주변의 식당 등 시장을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돈벌이 기회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를 통제함으로써 관련 주민을 시장 대신 배급을 주는 국영 기업(직장)에 나가도록 계속 유도해 왔다는 것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이를 두고 식량을 매개로 한 ‘칼로리 통치’라고 지적하면서, 요즘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보면 김정은 정권의 의도대로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 같다고 그는 진단했다.

시골벽적인 시장, 다시 볼 수 있을까?

리정호 씨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코로나 대유행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황을 틈타 계획 경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약화하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김정은식 ‘경제 실험’이 오래갈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적지 않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시장을 통제한다 해도 이를 대체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아 왔고, 지난 9월 4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를 합의한 만큼, 시장 통제와 함께 북한 체제를 장악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국영 상점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만큼 시장이 점점 위축되는 현상은 당분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신의주의 현지 소식통은 “시장에서 빈 매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고, 양강도의 소식통은 “과거에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줬는데, 지금은 나이와 시간 등을 제한해 장사하기 매우 힘들어졌다”라며 “왜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지,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지금의 무분별한 단속과 통제가 북한 시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북한 사회와 경제에 혼란을 주고 주민의 삶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과거 매대마다 판매자가 다양한 물건을 팔고, 소비자와 흥정하며 시골벽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던 북한 시장. 하지만 오늘날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으로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거처럼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최근 북한의 시장 억제 정책과 민생 영향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들어가며

북한의 시장 환율이 1달러 5만원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해 6월, 8천 원대에서 거래되던 환율¹⁾이 1만 3천원으로 상승했을 때만 해도 일부 시각에서는 허위 정보이거나 일시적 현상에 무게를 두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북한 경제를 흔들었더라도 당시 상황을 평가해본다면 국경봉쇄가 대부분 완화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북·중 무역이 재개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의 환율 급등은 국경무역 재개로 외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는 합리적 인식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북한 시장 환율은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모든 우려를 뛰어넘었다. 필자가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장마당 돈대(시장 환율)는 더 오를 것’이라고 현지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시장 환율 급등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식량과 의류를 비롯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북한 경제 불안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 실물경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환율 불안은 단순한 통화가치 변수를 넘어 북한 체제 불안과 직결되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 시장 환율의 폭등 배경과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포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김정은 정부가 발표 및 실행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시장 억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환율·물가 폭등을 초래했는지 짚어볼 것이다. 아울러 제8차 당 대회 개최(2021.01) 이후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2024.01)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년 만에 국정 임금 인상 조치

지난해 4월, 북한 당국이 국영 공장·기업소 근로자의 임금(1,800원)을 25배(5만원) 이상 전격 인상했다.²⁾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이하 7.1조치) 당시 근로자의 임금(60원 수준)이 30배(1,800원 이상)로 인상된 지 22년 만에 단행된 조치였다.

주목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정책이 국정 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목적과 정책적 맥락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02년 김정일 정권의 7·1조치는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배급제가 붕괴하며 등장한 전국 시장에서 식량과 물자의 수급 구조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즉, 물자 부족과 가격·임금의 비현실성을 방지할 수 없었고, 제도 밖에 확대된 비공식 시장을 제도권 내 흡수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격·임금 현실화, 기업의 자율성, 종합시장 제도화 등 부분적 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남북 경협 확대와 신의주 특구를 개방하는 등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도입하여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

1) 북한에는 국정환율(공식 환율), 협동환율, 시장환율이 병존하고 있다. 국정환율과 협동환율은 조선무역은행이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고시한다. 국정환율은 1달러당 100원 수준으로 사실상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협동환율은 시장 환율에 근접한 수준에서 전국 각지 조선중앙은행 지점에 설치된 ‘외환봉사소’와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해 적용된다. 이들 기관은 조선무역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협동환율 변동 시세를 근거로 원화 환율을 결정 및 고시한다. 북한의 외환거래는 국가의 공식 창구 외 비공식적인 개인의 환전 시장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환율이 있다.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장마당 돈대’라고 부른다. 국가의 협동환율은 ‘장마당 돈대’(시장 환율)보다 약 3~10% 낮게 고시되므로 북한에서는 시장환율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환율로 자리 잡고 있다.

2) 북한은 2023년 9월~10월 1급 이상 규모의 중앙공업 부문 공장기업소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시범 도입한 후 2024년 4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영병원 의사, 교사, 기술자, 공무원의 임금도 동시에 인상했는데, 3급 이상의 교사, 의사의 월 임금은 20만원이라고 한다. 공장기업소가 국가 계획을 초과 수행하면, 근로자들은 국정 임금 외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수 십 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필자가 확보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양인쇄공장 근로자(행정간부 포함)의 월 임금은 연한가급금, 기술급수 등에 따라 100~200달러이다. 100달러를 북한의 협동환율로 환전하면 400만원 수준이다.



는 특징도 있다.

반면 2024년 김정일 정권의 임금 인상 조치는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포한 데 이어 내각 중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김정은 정권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계획경제 본연의 발전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을 경제혁신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특권층의 이권 지대로 악화된 내각의 통제력을 복원하기 위해

서는 현존 북한의 경제 구조를 전면 정리하고 재편성해야만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 논리를 내세웠다.³⁾ 이후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경제 조직 자적 기능을 복원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⁴⁾ 이어 2021년에는 「영수증법」을 제정하고 「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시장화의 발달로 국영기업과 무역회사 운영이 계획경제 범위를 벗어나 자금 흐름이 분산되고, 그 결과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대응한 조치였다. 특히 「영수증법」은 기업이 자재를 수입하거나 시장에서 자체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영수증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기업 수익을 중앙정부가 투명하게 확인하여 재정 운용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022년 「가격법」을 개정하고 2021년과 2023년 「전자결제법」을 제·개정한 것도 분산된 자금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계획경제 통제력을 회복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개인의 밀무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 무역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2023년 전국 시·군에 양곡판매소를 설치했다. 양곡판매소는 국가가 수매한 농작물을 공급받아 시장가격보다(당시 쌀 1킬로 5천원) 다소 낮은 4천원 수준으로 판매하는 정부 산하 양정기관이다. 이는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된 이후 시장 중심으로 자리 잡은 곡물 수급 구조를 국가가 다시 장악하는 동시에 민심 이반을 국가 충정으로 회복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양곡판매소 설치와 동시에 전국 시장에서는 개인에 의한 곡물 유통과 판매가 통제되었으며, 생필품 장사도 점차 제한되었다. 비누와 된장 등 대중 소비재

도 국영상점에서 판매함으로써 시장이 아니라 국가상업망을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주민들의 장사를 통제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와 국영상점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시장가격 수준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판매하려면 주민들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민 소득이 따라서지 못한다면 국가가 장악한 물류 유통망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정임금 인상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의 임금 인상은 시장을 활용해 계획경제를 보완하겠다는 시도였다면, 현재의 임금 인상은 시장을 억제해 계획경제 위상을 회복하려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임금 인상 정책은 환율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며 실패로 이어진다. 북한 당국은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2002년 7.1조치 발표 전 북한 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북한 시장 환율은 1달러에 약 220원 수준이었고, 쌀 1킬로 가격은 40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7.1조치 발표로 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 1년 만에 쌀 1킬로 가격은 46원에서 700~1천원으로, 시장 환율은 1달러 220원에서 3천원으로 폭등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시행된 임금 인상 조치 후 1년 만에 1달러 환율은 8천 원대에서 5만원 가까이 폭등하고, 쌀 1킬로 가격은 5천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반복적 실패 배경에는 국가의 물자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 복원에만 주력하면서 국내 화폐량을 급격히 늘린 불일치가 꼽힌다. 신발 한 켤레 가격이 2만원~5만원에서 20~30만원 폭등한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사재기를 자극하여 민생고로 이어져 북한이 의도하던 내각 경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국의 대응과 <지방발전 20×10 정책> 영향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화폐 유통량과 재화 공급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즉, 계획과 시장 간 상호보완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적 균형보다 공권력을 통한 시장 통제에 집중되었다.

임금 인상 조치 이후 시장 환율이 폭등하자 당국은 이를 ‘공화국 법에 대한

3) "북한 경제혁신 핵심은 계획경제 복원...내각 통제력 되살리기" | 연합뉴스

4) 북한, 경제난 극복 총력...TF 만들고 내각 위상 끌어올려 | 한국경제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에 대한 고찰¹⁾

백 명 속 (송신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시장을 통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

북한에서 시장은 사회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 만일 시장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 변화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장을 통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북한연구에서 오래된 테마이다. 북한 전역에서 암시장의 형태로 팽창하던 장마당이 90년대 경제난을 지나 공식시장으로 발전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그 수가 400여개 이상 식별된다는 내용²⁾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기대감은 더 커져갔다. 이러한 기대와 예측은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는데, 그는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는 1984년생으로 시장에서 생존의 방식을 터득해 온 ‘장마당 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은 그가 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북한 사회를 개혁이나 개방과 같은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과 더불어 그가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며 정국을 장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집권 13년 차를 맞이한 김정은은 외부세계의 우려와



위대한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우수죽순처럼 솟아난 첫 실체들

도전이자 국가의 존립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역적행위, 적들을 도와주는 용납 못할 이적 행위⁵⁾로 규정하며 공권력을 동원했다. 내각 행정 명령 제1호(2023.03) 집행을 위한 공동 지시 제10호가 하달되었고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를 유통하거나 외화를 암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데 대하여”라는 사회안전성 포고도 발표했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현금을 유통할 때 국가가 공시한 ‘협동화폐거래소’ 환율, 1달러에 8,900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개 처형하거나 가족과 함께 산지로 추방하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⁶⁾ 이러한 통제는 단기적으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환율·물가 폭등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김정은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맞물려 민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향후 10년 동안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의 기초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해결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평남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2024.12.24.)을 시작으로 황남 재령군(2025.1.7), 평남 숙천군(2025.1.8.), 황북 은파군(1.10) 등 20개 시·군에서 수십 개의 공장이 일시에 준공되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의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김정은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 범위를 지방공업공장에서 종합봉사소, 보건의료시설, 양곡관리소로 확대했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재원 충당 부담도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직시한다면, 이 사업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시장 억제 정책보다 자금과 설비 등 자본 조달이 중요하므로 외부 협력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중·러 의존보다 한민족이 연대하는 남북 교류와 협력대안이 북한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해법이 아닐까싶다. 🐟

5) 2024년 하반기 배포된 북한 강연자료 “모두다 높은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환율 안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설 데 대하여”에서는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환율과 관련한 유언비어들을 철저히 짓밟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 연합뉴스; ‘돈데코’ 때리기 지속하는 北…한 달 새 5명 가족과 추방 | DailyNK

1) 이 글은 백명속. (2022).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6(2), pp. 39-74의 내용을 일부 편집, 요약하였습니다.

2) Silberstein, B. K., & Melvin, C. (2015). Growth and Geography of Markets in North Korea: New Evidence from Satellite Imagery.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SAIS.

달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은 여전히 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사회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시장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있는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인지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이다. 즉 북한에 있는 400여개의 시장은 단순히 물자를 분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모이고 확산되는 곳인지, 또는 시장에서 재산을 축적한 사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시장에서 얻은 사적 자산을 소유한 사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사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장을 작동시키는 제도는 이러한 사인들의 권리와 계약 및 시장의 다양성을 보호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에 이 글은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관점을 활용해서 북한시장의 발전경로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도에 의해 사회적 결과가 결정됨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학파 중에서 더글라스 노스(1993), 피터 홀(1986), 캐서린 텔린(1992)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 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의 변화란 시간적 맥락과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며, 한번 변화된 제도는 장기간 지속되어 또 다른 사회적 결과를 양산한다.³⁾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두 개념은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와 중대한 전환점 (critical juncture)이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방향이 고착화 되고, 그 효과가 축적되어 미래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서 만들어진 제도가 비록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는 이미 만들어진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경로를 향하던 제도가 내생적, 외생적 요인이 누적되는 제도의 부동(drift)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그 경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점이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대한 전환점이다. 즉 특정한 경로를 향해 나아가던 제도에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그 방향이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어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인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의 주요 제도를 서술하고 그 발전 경로를 논한다.

2.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

1) 정부에 의한 시장확산과 통제의 경로 생성기 (2002~2008년)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북한 시장의 제도변화에 적용하면, 비록 계획경제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시장경제 제도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당국은 90년대 이후 중앙공급의 공백을 대체하는 시장을 국가가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계획경제의 외형은 유지하는 경로를 택한다. 경제난으로 중앙공급이 마비된 상황에서 하부 단위에 자재를 하달할 수 없는 계획경제의 미작동과 전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암시장을 단속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에 대한 이완 및 축소와 더불어 시장을 장려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 북한 당국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잉여 생산물에 대한 물물교환과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헌법에 추가했다. 그 외에도 계약제도와 불법행위 방지제도 등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명시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북한에서 시장은 정부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확산 되었지만, 이는 체제전환을 의도한 전면적 개방은 아니었다. 우선 북한에서 국가소유인 생산수단의 민간소유 이전이나 국영기업의 법인화와 같은 체제 전환의 근본적인 제도변화는 찾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는 일부 소비재의 경우만 개인소유로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자원이 국가소유로 구분된다. 그런데 토지, 생산수단, 운송수단 등과 같은 자원들은 시장경제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되고, 외부투자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국가가 시장의 확산시키면서 여전히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확대를 원하지 않는 북한 당국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시장 억제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이 시기에 북한 당국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시장을 통제하는 경로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Peter A. Hal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al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Sven Steinmo·Kathleen Thelen·Frank Longstreth, ed.,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s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더글러스 C. 노스(Douglass C. North),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2) 북한 시장 경로변화의 중대한 전환점 (2009~2012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시장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로가 생성된 시기라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 시장이 개혁이나 개방이 아닌 정부의 통제라는 테두리 안으로 회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이 개혁이나 개방과 같은 진보적인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사유재산권의 완전한 보장⁴⁾이며 두 번째가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여 형성된 중산층 집단이 정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집단적 행동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09년에 시행된 5차 화폐개혁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말살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세대 당 교환 가능 액수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신권을 유통하였고, 공산품의 시장거래 제한 및 시장 거래 품목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으며, 국가로부터 사유재산을 침해 당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으나 그것이 대규모 집단행동이 되어 체제를 흔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하여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숙청하고, 이례적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면서 김정은의 주도하에 새로운 경제조치를 발표하는 등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수습을 이어갔다. 화폐개혁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5차 화폐개혁의 전후 상황을 통해 북한 당국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제위협 요소를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장을 통한 사회변화를 경계하고 있었다. 결국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시장의 발전경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하게 되고 5차 화폐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의 시장통제와 활용의 경로 고착기 (201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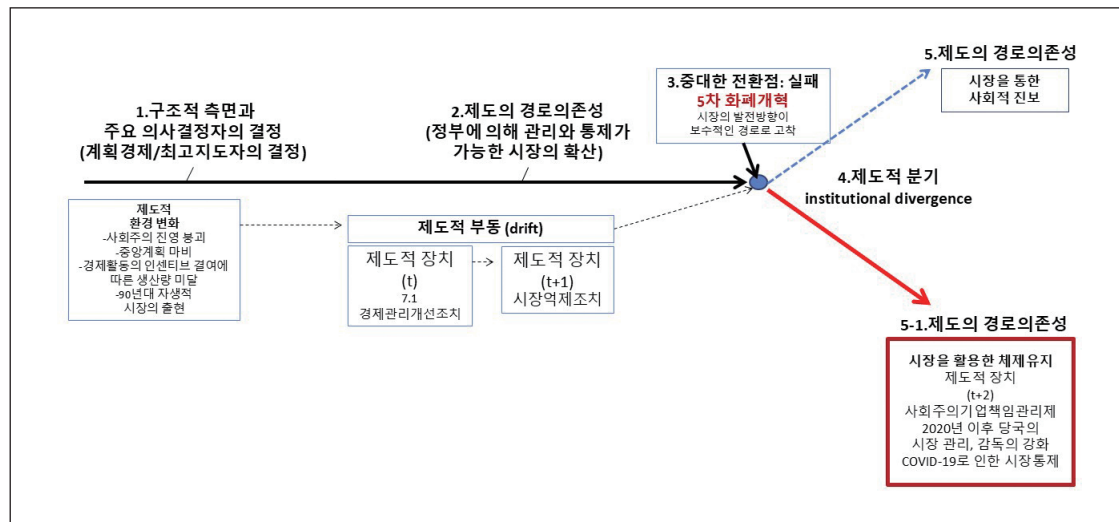
2013년 이후 북한 시장의 발전경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

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2020년~2021년에 시행된 시장에 대한 당의 관리 감독 강화 지침과 과 COVID-19 이후 시행된 국가의 시장통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14년 ‘우리식 경제개선관리조치’를 통해 실행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은 ‘기업의 시장화’를 공식화한 것에 더하여 기업에 ‘경영권’을 부여한 것이다. 종전에 북한에서 기업은 내각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민위원회, 지방당 등 당적 지도를 받는 국가기관의 최말단에서 중앙계획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종의 행정기관이자 하부 조직이었다.⁵⁾ 하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기업은 중앙의 행정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경영’의 주체자로 자율권을 보장받았는데 이는 북한기업 운영의 방식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행 이후 노동자 고용이나 잉여재산 운용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은 국가의 소유이며, 기업이 부여받은 경영권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만약 북한에서 시장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가소유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대한 점진적으로나마 민간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요소를 기업운영에 도입하여 이윤을 창출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국가의 시장활용이 제도화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북한 당국은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먼저 2020년 10월 19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시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당적 통제를 규정한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시문에는 각 지역에서 시장의 설치와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그 내용을 내각에 보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매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상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각 도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주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당적 통제’를 규정하면서 조직부를 통해 시장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앙당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고 ‘당 중앙의 영도 체계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인민 시장 경제 전반의 장악과 통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각 지역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4) 재산권이란 사실상(de facto)의 재산권을 포함하여 합법적, 제도적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법적(de jure) 재산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의 완전한 보장이란 개인이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은 물론 국가로부터 개인의 재산이 보호받는 법적인 보장과 더불어, 개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 사유 재산이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참고: Weingast, B. R. (1995).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1(1), pp. 1-31.)

5) 강희찬, 박인옥, (2018). 북한 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통일문제연구, 30(2), 298-301.



〈그림 1〉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

국가품질감독국 관할 대상에 개인 사업체와 봉사 기관을 포함하고, 시장을 통한 조세 수입을 확대하면서 시장 운영 체계를 내각의 관리 감독하에 두려는 시도들이 있었다.⁶⁾ 그러다 2022년 COVID-19 방역을 목적으로 북한 당국은 지역을 봉쇄하고 수많은 지역의 종합시장을 일시적이지만 폐쇄하기에 이른다.⁷⁾ 이렇듯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시장에 대한 당의 관리 감독 강화라는 맥락에서 COVID-19 방역은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를 위한 수단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을 체제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로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식화 한 것으로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3. 북한 시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당국에 의해 통제되던 북한 시장이 COVID-19의 종식 이후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신의주와 라선경제특구 등 접경지역을 통한 북중, 북러 무역도 재기되고 있다는 소식⁸⁾이 들려온다. 언뜻 보면 북한 당국은 다시 시장

을 통해 문을 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에서 시장은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은 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부터 암시장 또는 농민시장의 형태로 계속 존재해왔으며,⁹⁾ 고난의 행군은 기존에 있던 시장이 팽창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즉 북한 당국은 시장을 완전히 없애거나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국가의 통제 속에서 적절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5차 화폐개혁,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듯 북한 시장의 ‘확산’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만, 체제 전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적재산권의 완전한 보호,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의 민간 이전, 기업의 자율경영 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국가 권력과 사회주의적 틀 강화라는 방향으로 ‘경로 강화(path reinforcement)’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고 해서 시장을 통한 체제 전환과 같은 사회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한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듯 역사의 경로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때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체제에 위협이 되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억압할 수도 없는 북한 당국의 딜레마가 재편되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맞물려 새로운 경로로 그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 대한민국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북한에서 시장의 발전 경로가 체제를 수호하는 방향이 아닌 개혁 및 개방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는 돕는 것이다. ☹️

6) 홍민, 차문석, 김혁. (2022).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서울: 통일연구원. pp. 54-56.
7) 코로나로 활기있는 북한 시장... 성장세 '뚝', RFA 2022년 6월 18일자 보도.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06172022103041.html
8) 작년 北 무역규모 3.8兆...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아시아경제 2024년 7월 21일자 보도. <https://news.zum.com/articles/92102528/%EC%9E%91%EB%85%84-%EB%AC%B4%EC%97%AD%EA%B7%9C%EB%AA%A8-3-8-%EC%BD%94%EB%A1%9C%EB%82%98-%EC%9D%B4%EC%A0%84%EC%88%98%EC%A4%80-%ED%9A%8C%EB%B3%B5>

9) 정은이. (2011).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1), pp. 223-236.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 인천한나라은혜교회 김권능 목사(상) -

편집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광복의 그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한반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북한 교회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초와 고난, 그리고 그림에도 그 땅의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도 아울러 되새겨 봅니다.

북한개발소식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로서 인천한나라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권능 목사님을 만나 그분의 신앙 여정과 북한을 향한 비전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해아람을 초월하시는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나눔이 독자님의 마음에 북한에 대한 복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면을 통해 해당 내용을 3회에 걸쳐 나눕니다.

1) 탈북을 하며 깨닫게 된 북한 내 억압과 고통

목사님은 어떤 이유로 탈북을 하시게 되셨나요?

탈북을 하게 된 것은 배고픔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탈북 전까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충성심이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을 할 때에도 체제에 대한 반항이나 의심이 아닌, 일단

살아야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넘어와 보니 그동안 북한에서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만 해도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해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세 번 조직생활 참여할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풍족했습니다.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 개나 돼지의 형편이 우리보다 낫구나’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김권능 인천한나라은혜교회 목사 (사진=국민일보)〉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지요. 북한의 문제는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에 있으며,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억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문제들로 가난을 겪는 지역이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비록 우리보다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도로 사람들을 억누르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억압을 많이 당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억압이나 폭력의 형태로 분출이 됩니다. 저는 북한의 가정이나 개인 사이에 폭력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억압적 체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난보다도 억압이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사람들은 일종의 세뇌 또는 중독이 되어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억압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생각까지 통제받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아주 심층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더 많이 알수록 위험해지고,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실수로라도 입 밖으로 나올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 생존본능에 따라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죠.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는 물리적인 통제를 넘어선 영적인 억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살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니 모든 일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2) 복음과 마주하다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가난을 넘어 영적인 억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북한에서 속았다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충성 분자에서 180도 바뀌어 오히려 앞장서서 “김정일 나쁘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를 속인 그 체제를 뒤집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고, 중국에서 만난 다른 또래 탈북 청년들에게 그러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흩어지고 쫓겨 다니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무리에 있던 청년 몇이 성경 통독반에 가게 되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 저를 알게 된 선교사님이 저희를 찾아와 학교에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배움에 대한 많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도 잘하고 싶었고, 나라를 바꾸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사한 체제인데 북한은 못살고 중국은 잘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신분이 불안한 처지인데 학생이 되어 학생증을 얻으면 이것이 내 신분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생각해서 결단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일반 학교가 아니라 성



경을 공부하는 학교였던 겁니다. 그 학교가 성경통독반인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통독반에 가시기 전에는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주변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은 이들도 여럿 있었고 교회에 다니는 중국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 북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식으로는 교회라는 것이 참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장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요. 할 일이 많은데 주일이라고 일을 내려놓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탐탁지 않게 여기시던 기독교와 교회였는데 원치 않게 성경통독반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성경통독반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생존에 매달리고 물질을 크게 보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성경을 읽으니 삶에 유익한 좋은 말씀이 많았고, 그렇게 성경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탈북민 복음화에는 초청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특히 훈련의 공간이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주 접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시게 된 변화라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북한에 없는 것이 식량이나 물질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증오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생각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복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증오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이어져 온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의연해졌습니다. 북한 사람 중에는 습관적으로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처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좋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는 정말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먹고살 만했으면 그냥 거기서 복음도 듣지 못했을 텐데, 배고픔 덕분에 탈북했고 예수님 만났으니 이 정도면 내 인생은 족하다. 이다음은 플러스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겪으셨네요. 복음의 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변화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체포당하고, 복송되고, 순교할 때도 뚝뚝하게 죽음을 대면한 것은 바로 그 감격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공안의 습격을 받았을 때 주동자가 누구인지 짚어내려는 공안에게 오히려 자발적으로 일어나던, 20대의 나이로 복송을 당했지만 변방대 벽에다가 “탈북민들아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라고 적었던, 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청년들 말입니다.

저는 북한이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순교의 피가 북한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너무나 완고하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은 그 완고함을 넘어서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으셨는지, 꼭 지금 데려가셔야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가 복송되어서 감옥 갔을 때 당간부가 예수쟁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의 순교가 북한에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당연하게도 억압에 지쳐있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바꿀 대안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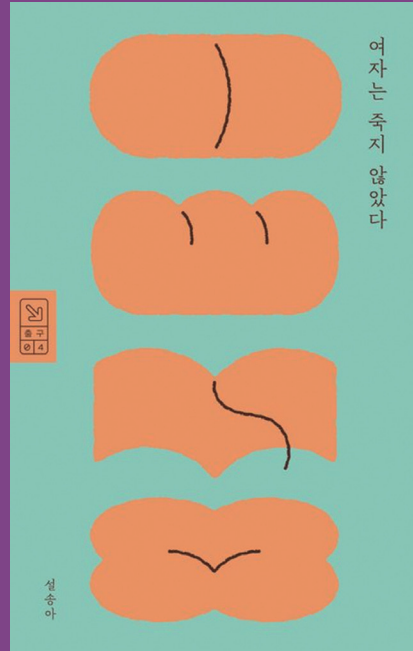
제 목: 여자는 죽지 않았다

저 자: 설송아

출판사: 봄알람

발행일: 2025년 4월 25일

가 격: 17,000원



건국 초기 북한은 법률과 사회 구조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반영하면서 남녀 평등에 있어서는 남한보다 더욱 앞서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성평등은 활자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김일성을 민족의 어버이로 받드는 이상화 작업에 돌입하면서 북한은 더욱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었다. 사회 시스템부터 각 집의 남성 가장을 직장배속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식량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가부장적인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장마당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의 고정된 성 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직장에 매여 시장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이 장마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북한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시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 “여자는 죽지 않았다”이다.

이 책은 탈북작가 설송아 님이 자신의 생애 여정을 문학적 형식으로 담아낸 자전적 글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경험했던 북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바로 뿌리 깊은 남녀 차별과 그 속에서 강요되었던 수동적인 여성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저항의 공간이 바로 장마당이다. 저자는 그 곳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벌이면서 국가가 제한했고 사회적으로 강요되어온 한계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 책은 저자의 시선을 따라 주로 여성의 입장에서 북한의 부조리를 다루고 있지만, 억압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가리지 않는다. 글에 묘사된 저자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편에게 수시로 매를 맞고 평생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를 하며 사시다가 “식량배급날만 기다리다가 인생이 흘렀구나”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유언으로 남기셨던 어머니, 그리고 조선족 출신으로 좋지 않은 성분으로 출세길이 좌절되고,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교습소를 운영하였지만 그마저도 탈북 관련 이슈로 문을 닫게 되며 생의 의지를 잃어버리셨던 아버지의 모습 모두 자신의 꿈을 꽃피워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억압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체제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회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만든다. 또한 저자의 이야기가 북한 안에서의 성공이 아닌 탈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새롭게 일어난 혁신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고발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잘 묘사하는 책이기도 하다. 특히 주인공인 저자가 장마당에서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벌였기 때문에 단순히 매대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는 깊이 있는 북한 장마당과 그와 연관된 각종 비즈니스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저자의 생애를 따라 시간 순서대로 글이 쓰여진 만큼 북한 사회가 겪었던 변화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게 된다. 무엇보다 책이 재미있고 술술 읽히기 때문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여성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

중국 전승절 참석한 김정은... 중, 러와의 친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과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3일 오전(현지시간)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망루에 오르기 전 레드카펫을 나란히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선 망루 앞줄에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이 왼편에, 푸틴 대통령이 오른편에 자리했다. 탈냉전 이후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열병식 이후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30분 가량 별도 회담을 하며 ‘혈맹’을 과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양측이 정세 전개 상황을 논의하면서 종전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날인 9월 4일(현지시간)에는 약 2시간에 걸쳐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북중 관계 복원을 알렸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이후 6년여만이다. 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없어 주목된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김정은 “비핵화 집념털면 미국과 못만날 이유없어”... 한국과는 “마주할 생각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0~2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면 마주앉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서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금 거론하였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철저히 이질화되었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나. 제재를 풀자고 하겠나”라며 “천만에! 천만의 말씀이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감축-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평가했다.

남한과의 대화를 원천 차단했지만 북미대화에는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대남 위협 발언도 내놔. 그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9월 22일) 🐟

이재명 대통령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END’로 한반도대결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협력해달라는 취지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지난 4년 동안 시장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양강도 해산시 장마당 거리 모습〉

북한 전문 매체 38North는 최근 발표한 기사 ‘Beyond State Control: The Struggle Over North Korea’s Markets’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 수년간 시장 관리·감시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허가증 검사, 불법 상인 단속, 외부 문화와 정보의 차단 등을 통해 시장이 가진 자율적 성격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북한 전역에 약 414개의 공식 시장이 존재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폐쇄나 이전이 확인됐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안남도 함산구역과 강원도 원산, 북평안도 의주군 등지의 시장이 2019년 이후 문을 닫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도 시장 규모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당국의 단속은 다층적이다. 비공식 노점상이나 무허가 상인에 대한 검문은 물론, 판매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외국 영화, 음악, USB 등 외부 문화를 담거나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물품은 압수 대상이 됐다. 시장에서는 보안 기관과 관리소의 불시 점검이 일상화됐고, 위반 시 벌금 부과나 물품 몰수,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장마당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산 식량, 사설 농장에서 나온 농산물, 의약품 등은 공식 유통망으로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은 친척 명의로 허가증을 발급받거나 이동 판매, 골목 장사 등 비공식 방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주민들이 여전히 시장을 생활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38North는 북한 정권이 시장을 단순한 경제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 통제와 권력 재집권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주민 생존을 위한 안전판이던 시장이 이제는 정권의 정치적 안정 도구로 변모하면서, 주민 생활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사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접근을 주문했다. 제재나 외교적 압박만이 아니라, 주민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 보건, 금융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서 제재 예외를 확대하고, 시장 기반의 자금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남북경협뉴스, 9월 16일) 🐼

탈북 여성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관련 설문... 탈북 여성들 불안 증가

중국 체류 동포들에게 북한 기독교 실태 질문지입니다.

※ 이 설문은 중국에 체류 중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 내 지하교회 존재 가능성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집 및 이용단계: .북한뉴스 리서치)

1. 이름, 출생연도, 성별을 알려주세요.
2. 중국으로 온 년도와 고향(시.군)을 알려주세요.
3. 북한에서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북한에서 성경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모 기독교 단체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 기독교 실태 질문지'라는 제목으로 조사한 설문지 일부)

최근 중국에 거주 중인 탈북 여성들 사이에 종교 관련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모 선교회는 중국의 소셜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탈북 여성들이 모인 단톡방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중국의 탈북여성들은 단톡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톡방은 친목과 정보교류의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규모는 3~4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이 모인 단톡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단톡방의 경우 중국 내 거주 중인 여성 뿐 아니라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여성, 탈북여성의 남편 등 온갖 인물이 들어와 있다. 중국 내에서 위챗 계정을 개설할 경우 중국 당국의 정보제공 동의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메신저의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챗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당국의 감시 아래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300여 명이 모인 위챗 단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설문조사지를 단톡방에 올렸다. 국내의 한 선교단체 명의로 올라온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름,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질문들은 모두 북한 내부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여성들 사이에 설문에 참여하면 과자를 준다거나 사례금으로 중국돈 50원, 400원을 준다는 소문이 돌아 수많은 여성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러나 여성들 중 사례금을 목적으로 주변의 가족들과 중국인 지인들의 핸드폰을 이용해 한사람이 여러 차례 설문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 설문에 참석한 한 여성은 “중국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민감한 내용을 버젓이 단톡방에 올리나?” “북한에서 지하교회 들어본 사람이라도 무조건 ‘없다,’ ‘모른다’에 체크할 수밖에 없는 설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톡방에 초대받은 여성이 초대한 여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탈북 여성들 간에 갈등이 생긴 사례도 있다. 국내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휩쓸고 지나가는 단체들, 갑자기 나타나서 자매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단체들 때문에 조용히 일하는 건실한 단체의 사역이 위축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며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후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의 경제 교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러우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은 북중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확대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선교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중러협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북중교류 확대가 북한 선교를 위한 접촉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비핵화 외에 분야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북미 대화의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1년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통제 중심의 경제 정책과 평양 및 군수산업 위주의 자원 배분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관광 산업이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북한의 중점적으로 투자해왔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7월에 개장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로 인한 관광객 저변 확대와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고, 자유관광이 불가능하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관광지로서의 경쟁력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업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져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됩니다. 관광산업이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이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대다수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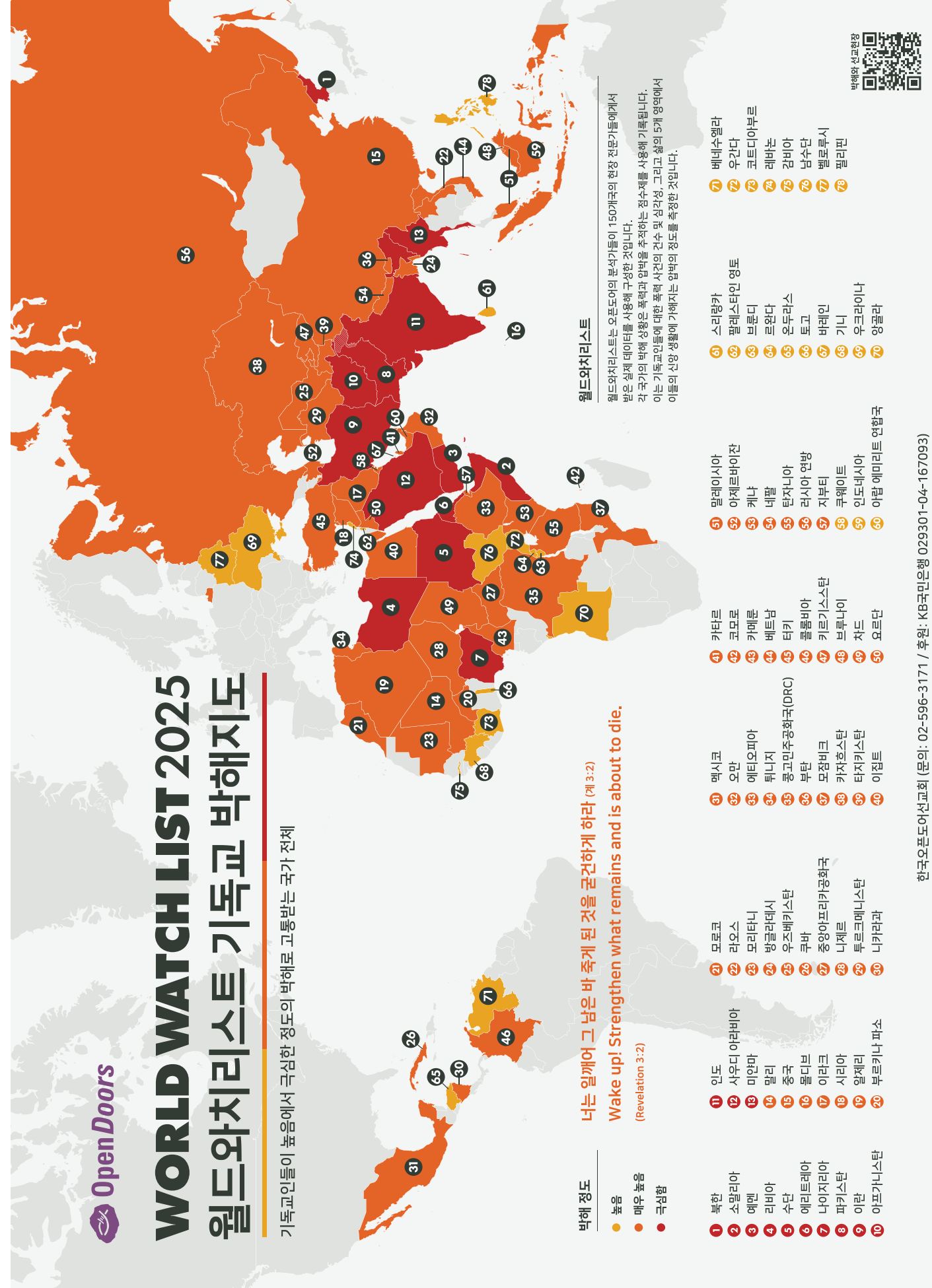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24년 초 러시아에 구금된 백 모 선교사님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탈북 여성들 수백여명이 연락을 주고받는 위챗 단톡방에 모 선교단체의 무리한 설문조사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이름,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북한 내부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챗을 통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상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응답자들을 위협하게 만들고 다른 사역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사례가 제공된다는 말에 설문에 참여했던 여성들 상당수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탈북 여성 사역에 나서는 기관이나 사역자들이 오히려 북한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주의 깊은 자세로 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9월 30일





Mission
Bible
College

선교사들이 개발한 'ABC성경대학'교재

- 셀프 성경 공부 교재
- 교회 소그룹 교재
- 교육 자료가 부족한 해외 선교 현장

본 교재는 국내 교회 및 해외 선교현장에서 성도들이 성경과 신학을 어렵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이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평신도,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성도들을 세wig가기를 원하는 교회, 평신도 리더를 길러내고자 하지만 교육자료가 부족한 선교현장에 적극 추천합니다.

ABC성경대학(Asia Mission Research Center - Bible College) 교재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습니다.
2. 개인 및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마다 질문, 묵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습니다.
3. 성경 해석 참고 도서가 부족한 선교 현장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습니다.

AMRC 바이블 칼리지 교재는 기본과정, 성경연구과정, 성경신학과정, 일반신학과정 총 40개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CLC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였습니다.

※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에서 판매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CLC사도신경, CLC주기도문, CLC십계명을 검색해 보세요.)

